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21. 04. 27. ~ 2021. 07. 26.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펀드는 -2.04%의 수익률을 보였어요. 같은 기간 +0.23%를 기록한 비교지수 대비 2.27%p만큼 다소 아쉬운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작은 변동은 있으나 크게 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좋게 나오고 2차전지, 인터넷, 신재생 에너지가 높은 성장을 보여 국내 증시가 크게 오르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확산됨에 따라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난 후로는 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현재 증시는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크게 존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비교적 적은 위험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우량 가치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지,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지, 현재 회사의 재정상태가 건강한지를 기준으로 두고 회사가 우량 가치주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간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운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전 분기에 이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서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되는 종목들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5G, 2차전지, ESS 주요 부품에 필요한 알루미늄,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등의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펀드 수익률 성적표> 기준일 : 2021.07.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2.04%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21. 04. 27. ~ 2021. 07. 26.) -2.04%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0.23%인 것에 비하면 2.27%p만큼 낮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
+47.22%

비교지수 : +41.35%
비교지수대비 : +5.87%p

최근 3년 수익률
+40.84%

비교지수 : +37.39%
비교지수대비 : +3.45%p

최근 5년 수익률
+72.22%

비교지수 : +53.88%
비교지수대비 : +18.34%p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7,693백만원

순자산 총액

-4.19%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4.19% 줄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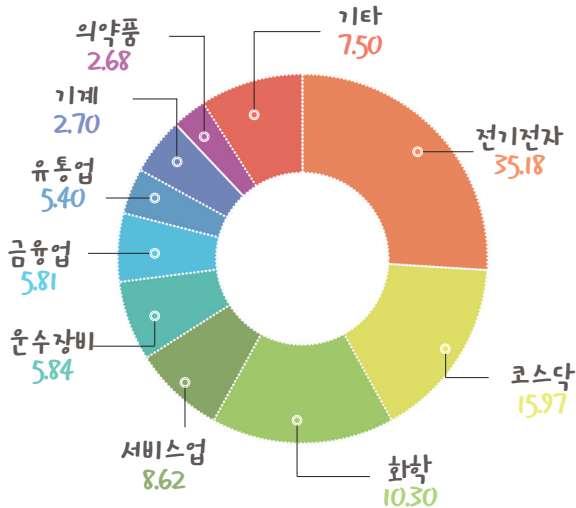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2021. 07. 26. 단위: %)

1위	삼성전자	21.63	6위	SK하이닉스	2.85
2위	서진시스템	4.91	7위	씨에스윈드	2.63
3위	LG화학	4.38	8위	SK	2.53
4위	현대차	3.45	9위	삼성전자우	2.25
5위	NAVER	2.90	10위	현대모비스	2.23


2021년 7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종목은 삼성전자, 서진시스템, LG화학 등의 종목을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나요?>



서진시스템

친환경, 경량화의 대표 소재인 알루미늄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크게 반도체 생산 장비의 구동장치, 5G 관련 통신 장비(중계기 등), 휴대폰 메탈케이스 등을 생산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NAVER

NAVER

우리나라 1위 인터넷 검색 포털인 '네이버'와 모바일 메신저 '라인', 동영상 카메라 '스노우', 디지털 만화 플랫폼 '네이버웹툰' 등을 서비스 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요.

CSWIND CORP

씨에스윈드

풍력 발전기를 고도가 높은 곳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풍력발전 타워, 풍력발전 타워용 알루미늄 플랫폼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보나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 2021. 07. 26.

(단위 : 백만원, %)

매수

수량	금액
57,342	2,469

매도

수량	금액
50,230	3,123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연환산
11.66	46.79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2020.10.27. ~ 2021.01.26

17.24

2021.01.27. ~ 2021.04.26

11.34

2021.04.27. ~ 2021.07.26

11.66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테이퍼링

안녕하세요,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이번 경제열전에서는 테이퍼링(Tapering)에 대해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요새 뉴스와 기사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인 테이퍼링은 어떤 뜻일까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는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벤 버냉키 의장이 언급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Taper는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점점 가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의 규모를 점점 가늘게 만드는 뜻입니다. 즉, 테이퍼링은 정부가 시행하던 양적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양적완화는 무엇일까요? 양적완화는 바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불황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가 펼치는 경기부양책의 일종이에요. 경기부양책 중에는 금리를 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데 이자 부담이 적어지므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경기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여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금

리가 많이 낮아져서 경기 개선을 위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기 힘들어졌어요. 그러자 등장한 방법이 양적완화랍니다.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시장에 돈을 풀기가 어렵게 되자 중앙은행이 국채 등을 매입하여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장에 풀린 돈으로는 기업 활동이나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답니다. 이처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물가가 오르는 단점도 있답니다. 시장에 풀린 돈이 자산으로 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과를 1,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1,000원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서 너도나도 사과를 사겠다고 해요. 그렇게 사과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과를 1,0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내놓아도 팔리겠죠?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답니다.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테이퍼링

양적완화와 테이퍼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현 상황에 한 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현재 미국은 2020년 3월부터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는 아주 전염성이 강한 병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되도록 집에 머무르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런데 다들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니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소비가 줄게 되면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이 발생하죠. 여러분이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지 않으면 분식집 사장님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일하러 갈 수 없어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도 많이 발생했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의 소득 또한 줄어들겠죠. 이처럼 악순환이 반복되고 경제활동이 멈춰버리자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버렸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러한 불황이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양적완화 덕분에 불황을 견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도 발생했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감수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서 양적완화를 시행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긴급한 상황이 마무리되고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보이면 양적완화는 서서히 줄여야겠죠?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테이퍼링의 시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테이퍼링의 시행에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여러분이 사과를 팔고 있었죠? 돈이 생긴 사람들이 사과를 사려고 해서 사과가 아주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과를 많이 시농았답니다. 그런데 테이퍼링이 시행되며 시장에 풀리는 돈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좀 더 아껴 쓰게 될 테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 놓은 사과는 잘 팔리지 않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사과를 사놓기 위해서 썼던 돈 또한 헛되게 쓰이게 될 테고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테이퍼링의 시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여기에는 한 가지 예만 있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영향을 주기에 많은 사람들이 테이퍼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경제열전에서 만나요!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투자신탁(주식)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4%로 비교지수 수익률 +0.23% 대비해서 2.27%p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 X 90% + CD91 X 10%)

<운용경과>

미국 6월 고용지표 호조와 업종별로 2차전지, 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강세에 힘입어 지수는 월초 3,300pt를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며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월 중순 이후 중국 플랫폼, 사교육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발표에 따른 중화권 증시, 중국 ADR^{주)} 급락이 투자 불안 심리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습니다.

지수 레벨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현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량 가치주' 여부를 판단할 핵심적 근거는 1) 얼마나 확장성이 큰 산업(시장)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지, 2)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유의미한지, 3) 현재의 현금흐름 양상이 양호한지(혹은 앞으로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지)가 될 것입니다.

해당 관점에서, 전 분기에 이어 동 펀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아 향후에도 기업 가치의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 글로벌 5G, 2차전지, ESS 주요 부품에 지속 증가하고 있는 알루미늄 수요에 글로벌 수급 역량 보유한 기업, 2) 2차 전지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R&D와 신제품 선도하는 기업, 4)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신시장 개척에 따른 실적 개선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음식료 업체, 5) 건설 경기 회복에 필수 건자재 시장에서 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 : 미국 시장에서 발행한 주식에탁증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운영되는 회사의 실체는 본국에 있으나 상장을 미국 내에서 진행하여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게끔 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및 접근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코스피가 월간 증가 기준 8개월 연속 상승한 기록은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이었던 1977년과 현재, 두 차례 뿐일 정도로 드뭅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더 큰 동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이슈와 테마가 빠른 순환을 하면서 장세가 펼쳐졌다면 앞으로는 반도체 업종이 반등하거나 미국을 비롯한 봉쇄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 국가에서 'living with the coronavirus'(코로나의 종식보다는 일상속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간주) 방침을 내면서 경기재개 기조를 이어나가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수 피로도가 높은 상황, 그리고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 업종 순환매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단기 투자 성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벨류에이션 부담이 비교적 낮고 다가올 매크로 변수들에 의해 근본적인 성장 스토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업에 대한 보유 비중을 묵묵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기 측면에서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업종 전환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던 반도체 및 주요 곡물가격이 고점에서 안정세를 찾고 있는 가운데 가격인상을 성공시킨 음식료 기업에 기회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중장기적인 사회구조적 변화 흐름, 그리고 기업 본연의 경쟁력에 집중하는 리서치와 펀드 운용을 통하여 중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